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7.12(금) ~ 2024.7.18(목)

제공일시 2024 07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7.12(금) ~ 2024.7.18(목)

제공일시 2024 07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美, 중국 '반도체 굴기' 막으려 동맹국 압박... 'FDPR 적용' 검토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 동맹국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장비기업인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등에 대해 '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이어 미국 정부가 일본 및 네덜란드 당국에 이러한 정책을 알리고 자체적으로 대중국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임

(뉴스1 2024.7.17) 이창규 기자  
(조선일보 2024.7.17) 전병수 기자

### 2. EU, 루마니아 신규 원전 건설 승인

- 유럽연합(EU)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함.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함
- 이에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체르나보다 원전에 3호기와 4호기를 새롭게 건설할 예정. 각각 오는 2030년·2031년 가동이 목표임
- 루마니아는 신규 원자로 2기가 추가 설치되면 연간 20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유관 산업에서 1만9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함

(더구루 2024.7.13) 홍성환 기자

### 3. 이번엔 구글·애플페이... EU·英 더 세진 반독점 규제

-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디지털시장법(DMA) 등 신규 법안으로 빅테크 규제에 나선 가운데 영국도 간편결제 시스템을 정조준함
- 이미 국민 절반 이상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점·경쟁 여부, 정보보호, 시장 건전성 침해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임
-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결제 시스템 규제기관(PSR)은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대상은 애플페이·구글페이·페이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임

(매일경제 2024.7.16) 진영태, 정호준 기자

### 4. 독일, 2027년부터 그린수소 수입

-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그린수소 제품 수입을 위한 1차 입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최소 25만8000톤의 그린 암모니아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입찰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합작 법인 페르티글로브(Fertiglobe)가 계약을 낙찰 받았으며, 수입될 암모니아는 이집트에서 생산될 예정임
-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H2글로벌재단(H2Global Foundation)을 통해 국외 공급망을 확보해 그린수소 제품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이를 독일 및 EU 내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함

(에너지신문 2024.7.15) 조대인 기자

## 1.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출범… 수소에너지 상용화 앞선다

-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청정 수소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이 출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7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고,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힘
-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은 지금까지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던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한데 모으는 중심 조직으로 활동함. 또, 연구 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 공유하고 국내 개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함

(머니투데이 2024.7.17) 박건희 기자

(브릿지경제 2024.7.16) 정다운 기자

## 2. 환경부, 나주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 정보센터 건립

- 정부가 전남 나주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 정보센터 설치를 본격 추진함
- 환경부는 전라남도·나주시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4일 밝힘
- 환경부는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비 454억원(국비 442억원·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해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정보센터 구축에 나섬
- 센터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자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 수집·분석 등임

(남도일보 2024.7.14) 윤종채 기자

## 3. 수소-석탄 혼소발전, RE100에서 제외될 듯

- 수소-석탄 혼소 발전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100% 쓴다’는 재생에너지100(RE100) 인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짐. 수소-석탄을 섞어 발전하는 게 RE100 기준에 맞지 않다는 뜻임
-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혼소 발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 15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위원회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주최한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에서 ““2024년 RE100 기술 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가 수소-석탄 혼소 발전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올해 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새로운 RE100 기술 기준에서는 수소-석탄 혼소 발전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됨

(아시아경제 2024.7.15) 강희준 기자

## 4. 오영주 중기부 장관 “공급망 혁신 상생프로젝트 연내 가동할 것”

- 정부가 탄소 중립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급망 혁신 상생 프로젝트’를 올해 가동하기로 함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열린 ‘2024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밝힘
- 오 장관은 “상생의 새로운 시각으로 대기업의 오랜 해외 진출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서울경제 2024.7.11) 노현섭 기자

## 5. 韓·日 ‘핵융합에너지’ R&D 기술동맹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기술협력을 위해 7월 11~12일 ‘제 20차 한·일 핵융합 협력 공동조정관회의(JCM)’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보유한 핵융합 장치를 활용한 초전도 핵융합 장치 운전 기술협력과 핵융합 분야의 디지털트윈 기술,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협력 등 협력 분야를 새롭게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헤럴드경제 2024.7.12) 구본혁 기자

### 1. 테슬라 호주서 약 4억달러 ESS ‘메가팩’ 공급계약 따내, “실적 중요도 커져”

- 테슬라가 호주에서 5천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인 ‘메가팩’ 공급 계약을 맺음
- 15일(현지시각) 전기차 전문매체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지업체 아카이사에너지가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 설치하는 ‘오라나’ ESS 프로젝트에 3억7500만달러(약 5197억원) 규모의 메가팩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테슬라는 2024년 4월 프랑스 개발사 네오엔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에 구축하는 콜리(Collie) 배터리 증설 사업을 일부 따냄

(비즈니스포스트 2024.7.16) 이근호 기자

### 2. 일본 에너지 기업 인펙스, 호주 재생에너지 2조원 투입... 녹색수소 거점 만든다

-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Inpex)가 2030년까지 호주에서 2000억엔(약 1조7473억원)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13일(현지시각) 일본의 미디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함
- 인펙스는 호주를 그린수소 수출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에넬(Enel)과 세운 합작 회사인 에넬 그린파워 오스트레일리아(Enel Green Power Australia, 이하 EPGA)를 통해, 300MW(메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최소 2000MW에서 최대 4000M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인펙트온 2024.7.16) 송준호 기자

### 3. 빈패스트, 인도네시아 전기차공장 착공... 연산 5만대 규모

- 베트남 토종 전기차제조업체 빈패스트(VinFast)의 인도네시아 전기차공장이 마침내 첫 삽을 뜬
- 빈패스트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수방시에서 전기차 조립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함
- 빈패스트의 인도네시아 조립공장은 연산 5만대 규모로 건립됨. 내년 4분기부터 초소형 SUV 전기차 VF3부터 VF5·VF6·VF7 모델의 우측운전석(RHD) 차량 양산에 돌입할 예정임

(인사이드비나 2024.7.17) 윤준호 기자

### 4.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호주 니켈사업 중단 공식발표

-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가 호주 니켈 사업을 잠정 중단함. 글로벌 니켈 시장 공급 과잉에 따른 결정임
- BHP는 11일(현지시간) 서호주 니켈 웨스트의 운영과 웨스트 머스그레이브 프로젝트를 오는 10월부터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구체적으로는 퀴나나 니켈 제련소와 칼굴리 니켈 제련소, 마운트 키스·린스터 니켈 제련소 등 웨스트 머스그레이브 프로젝트 개발의 채굴 및 가공 작업이 중단됨

(더구루 2024.7.12) 정등용 기자

### 5. “오픈AI, 2027년 원전 에너지 공급받아 AI 구동 가능성”/ “AI 위험 경고, 회사가 막았다”...

#### 오픈AI 직원들, 美 SCE에 내부고발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027년 원전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샘 올트먼이 투자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오클로(Oklo)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첫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편,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됨
-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픈AI 내부 고발자들이 SEC에 회사 측의 불법적인 기밀 유지 계획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서한을 독점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함

(전자신문 2024.7.14) 권혜미 기자

(이데일리 2024.7.14) 양지윤 기자

### 1. '팀 코리아', 24조 체코 원전 수주... 佛 꺾고 유럽 첫 진출 쾌거

-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한국경제 2024.7.17) 노정동 기자
-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임. 'K-원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임. 특히,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꺾고 유럽에 첫 진출을 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옴
-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한수원을 자국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에 참여함
- 이번 사업은 두코바니, 테멜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최대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 2. SK이노-E&S 합병 결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 탄생

- SK그룹의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SK E&S와의 합병안을 의결함 (매일일보 2024.7.17) 이미현 기자
- SK E&S도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양사간 합병안을 의결함
- 합병 법인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공식 출범함. 이에 SK이노-E&S 합병으로 연 매출이 90조원 규모, 자산이 106조원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됨
-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2 수준인 것으로 전해짐

### 3. LS에코에너지, 희토류 탈중국 공급망 구축... 베트남과 희토류 산화물 계약 체결

- LS에코에너지가 올 하반기 중으로 베트남을 거점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재구축함 (CEO스코어데일리 2024.7.16) 박대환 기자
-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외 국가로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LS에코에너지는 LS전선, LS에코첨단소재와 희토류 조달·분리·정제부터 영구자석 제조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4. 애경케미칼-조비 생분해 비료, 포스코인터 인니 팜농장 수출

- 애경케미칼은 조비와 공동개발한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팜농장(PT BIA)에 수출한다고 15일 밝힘 (연합뉴스 2024.7.15) 김아람 기자
- 완효성 비료를 둘러싸는 생분해 수지는 미국 농무부(USDA)의 바이오 소재 기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햇빛과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됨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팜농장에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를 적용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나갈 방침임

### 5.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 자회사로 품는다... 두산 '사업구조 재편'

- 두산그룹이 사업구조를 3대 부문으로 재편하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긴다고 11일 밝힘 (와이드경제 2024.7.11) 김민재 기자
- 두산 그룹은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등 3대 부문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계열사들을 사업 성격에 맞는 부문 아래 위치하도록 조정함
- 우선, 클린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등이 주축임. 또한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두산밥캣과 협동로봇 시장에 진출한 두산로보틱스가 사업적으로 결합함.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부문의 핵심은 시스템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두산테스나임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7.12(금) ~ 2024.7.18(목)

제공일시 2024 07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미국, 전기차 공장 전환과 공급망에 20억 달러 지원

-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자동차 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존 시설을 전기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약 20억 달러(2조7540억원) 지원을 발표했음
- 미국 에너지부(DOE)는 11일(현지시각) 오하이오주 미시간 등 8개 주에 걸쳐 폐쇄되었거나 위험에 처한 11개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시설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7억달러(약 2조3409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음. 이번 지원이 과거와 다른 점은 전기차 생산시설 뿐 아니라 현대모비스처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지원해서 전기차 공급망까지 지원한다는 점임
-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약속을 업체가 지킬 것인지 미국 연방정부와 협상을 거친 뒤 최종 지원이 확정됨. 미 에너지부는 또한 환경 검토도 실시할 계획임. 선정된 프로젝트 지원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29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11개 시설 전체에서 1만5000명 이상의 고도로 숙련된 조합원을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미국내 자동차 제조 전환 보조금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전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전기 구동 및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의 미국내 생산에 투자함. 이번 사업은 경·중·대형 전기차 및 부품 제조를 확대하고, 차량 조립, 부품 조립, 관련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상업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 이 프로그램은 또한 기후, 청정 에너지, 청정 교통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투자의 전체 이익 중 40%는 소외 계층 지역 사회에 흘러가는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도 발전시킴
- 이번 전환 보조금 지원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제조 및 에너지 공급망 사무국(MESC)에서 관리함
- 로이터에 의하면,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에 약 11억달러(약 1조 514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기존 공장을 전기차 및 부품 제조용으로 전환시킬 계획임
- 제너럴모터스(GM)는 미시간주 조립공장을 전기차 생산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5억달러(약 6885억원)를 받을 예정임. 스텔란티스는 폐쇄된 일리노이주 벨비디어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데 3억 3480만달러(약 4607억원), 인디애나 코코모의 변속기 공장을 전기차 부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2억 5000만달러(약 3442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임
- 한편, 현대 모비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부품과 배터리 팩을 생산하기 위해 3200만달러(약 441억원)를 받게 됨
- 할리 데이비슨은 8900만달러(약 1225억원)를 지원받아 전기 오토바이 제조를 위한 펜실베이니아주 공장 확장 등에 쓰고, 엔진 제작으로 유명한 커민스(Cummins)는 7500만달러(약 1032억원)를 받아 기존 인디애나 공장의 일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부품과 전기 파워트레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씀
- 볼보그룹은 2억800만달러(약 2864억원)를 받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의 공장을 업그레이드하여 전기차 생산 능력을 높이고, 변속기로 유명한 ZF는 미시간주의 공장을 전기차 부품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1억5700만달러(약 2162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임

(임팩트는 2024.7.15) 홍명표 기자